

2012 춘천MBC 연중캠페인

오라 강원도 가자 세계로



춘천호수별빛축제 2012
CHUNCHEON LAKE & STARLIGHT FESTIVAL

2012.5.24 ~ 8.26
점등시간 19:30~22:30

춘천MBC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54 TEL : 033.259.1215 FAX : 033.254.6400
http://www.chmbc.co.kr Twitter : @chmbc Facebook : hongbo@chmbc.co.kr



정관개정소위원회 보고

임원임기 4년에서 3년으로 의견 접근

상임부회장, 총무이사 등 상근임원, 사무처장은 1회만에 연임

이사회 결정, 사우회보 격월 발간으로 자주 보게 된다

이사회 의결거쳐 내년 사원총회 보고

2012년 제4차 사우회이사회가 7월 6일 (금) 오전 10시에 사우회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사무처는 올 상반기 실적과, 정관개정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관개정안과 전반기 행사내용 및 결과 그리고 사우회보 격월 발간 문제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사회는 사우회보 격월제 발행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분기별로 발행되고 있는 사우회보가 제13호 회보부터 한달 앞당겨 9월 15일에 발행된다. 사우회보는 앞으로 2개월에 한번씩 1년에 모두 6번 발행되며 면수는 현재의 6면에서 4면으로 줄어든다. 이사회에서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정관개정소위원회(위원장, 이용구부회장)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쟁점항목들에 대해 보고했다.

6월 13일(수)에 열린 정개소위 3차회의에서 위원들은 임원(회장-부회장-감사-이사)들의 임기를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것은 임기단축과 함께 문화보험과의 임기를 맞추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사우회 상임부회장은 문화보험 대표이사사장, 부회장들은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우회 부회장은 임기가 4년, 문화보험 이사들은 3년이어서 부회장 임기 도중에 문화보험 이사에 대한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또한 회장의 임기는 단임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부회장과 총무이사 등 상근임원도 직책에 관계없이 1회 만 연임할 수 있도록 고쳐 6년이상은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무처장의 임기도 3년으로 명문화 하고 임원을 포함해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무처장-총무이사-부회장에 이르는 장기 근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러나 비상근 임원의 경우 해당 직책에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이론상으로는 최고 18년까지 장기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게 됐다. (예 : 감사2회6년+이사2회6년+부회장2회6년) 이 경우 부회장과 이사를 추천하는 각 부문 회장단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우회 사정을 잘 아는 임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이사와 부회장을 연임하더라도 6년으로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다

1년이상 MBC근무 사원이면 언제든지 사우회 가입 허용키로 회갑, 팔순 축의금 지급액수 조정

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MBC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사우회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자격을 갖춘 사람은 MBC 퇴직 시기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을 허용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와 함께 회원의 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조규정도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회갑, 팔순 축의금 지급액수를 조정하자는데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관개정 소위원회는 8월 중순에 4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무처는 정관개정 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사회를 열어 의결을 거친 뒤 내년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양주 문화동산 단합대회 대성황

본사지원 갈비 순식간에 동나, 작년보다 70여명 많은 250명 참석
김수량 회장, '역대 가장 많은 회원참석은 사우회 단합과 연대감 과시한것'

5월 18일에 실시된 사우회 단합대회 때는 역대 가장많은 249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지난해 단합대회때는 사우회앞에 준비했던 버스 4대 가운데 1대를 돌려보내기도 했는데 올해는 마지막 4호차에 자리가 모자라 권순복전부회장등 16명의 회원들이 문화동산까지 서서 가야하는 고역을 치르기도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170~1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온 전례를 감안해서 MBC에서 330여명분의 갈비를 주문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70여명이나 많은 회원이 대거 참석하는 바람에 갈비가 순식간에 동이났다. 이때문에 여유를 부리며 식사를 즐기려던 일부 회원들께서는 부족한 갈비를 조금은 아쉬워 하는 분위기도 보였다. 행운상 추첨에서 1등상은 송인익(관리)회원, 2등상은 조동근(기술)-이병구(보도)-표찬일(편집)

회원, 3등상은 홍종선(편집)-김영기(기술)-천영숙(편집)-안영순(관리) 회원에게 돌아갔다. 회장 취임이후 첫 단합대회를 치른 김수량회장은 역대 가장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것

행운상 추첨

1등상-송인익(관리)

2등상-조동근, 이병구, 표찬일

은 MBC사우회의 발전과 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단합대회를 지원해준 MBC측에 감사를 표했다. MBC 안광한부사장은 파업이 길어지면서 MBC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하고 하루빨리 파업을 종결시켜 방송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KCAC

2013 스쿨의 프로!
공주영상대학교
KONGJU COMMUNICATION ARTS COLLEGE

명품교육 20년!

Vision K-PRO 2020!

인학상담 : 044-850-9031-4 (Fax. 044-850-9188)
대학홈페이지 : www.pro.ac.kr
[314-713] 세종특별자치시 정군면 대학길 312번지



스쿨의 프로!

공주영상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수시 1차	수시 2차
원서접수	2012. 8.16(목) ~ 10. 9(화)	2012.10.25(수) ~ 11.20(화)
면접/실기 고사	2012.10.12(금) ~ 10.13(토) 오전 10시	2012.11.23(금)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	2012.10.22(월) 오전 11시	2012.12. 3(월) 오전 11시
합격자 등록	2012.12.11(화) ~ 12.13(목)	
원서 접수처	대학홈페이지 www.pro.ac.kr 진학사 www.jinhakapply.com 유웨이 www.uwayapply.com	



동호회 봄철행사 모두 마쳐

사우회 상반기 동호회 행사가 4월 18일 등산클럽 회원들의 삼각산 산행을 시작으로 낚시, 골프, 바둑대회를 치루고 6월 20일 원로회원들의 문화탐방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한편 한문동호회는 매주 목요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논어를 열공중이다.

문화탐방

철원 제2땅굴 안보탐방

77세이상 원로회원 32명 참가
가을 행사에는 70대 초반 회원 등 초청계획

올 문화탐방은 강원도 철원 부근에 있는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노동당 당사 등 안보관광 위주로 실시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신형창(보도) 회원은 땅굴과 노동당 당사는 처음 보는것이 아니지만 볼때마다 안보의식을 새롭게 해준다면서 사무처에서 6월 호국의 달에 좋은 장소를 택해 문화탐방을 실시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문화탐방에는 77세 이상 원로회원 3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우회 사무처는 1년에 2번 실시되는 산업시찰(문화탐방)에 가급적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을철 행사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을 비롯해서 70대 초반의 회원들 위주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바둑대회

6월 7일 사우회 사무실, 수담 나뉨

A조 우승 한박무(보도), B조 우승 백재인(편제)

6월 7일에 실시된 바둑대회에서 A조는 한박무(보도), B조는 백재인(편제)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5급 이상 15명이 출전한 A조에서 아마5단의 한박무, 4급의 임두호(기술) 회원이 결승에 올라 자웅을 겨룬 결과 한박무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박무 회원은 지난해 가을철대회에 이어 연속 우승과 함께 최근 4년, 7번의 대회에서 우승 3번, 준우승 1번을 차지해 사우회 바둑클럽에서 절대강자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B조에서는 백재인 회원이 장영효(관리) 회원을 물리치고 2008년 가을철 대회 준우승 이후 4년만에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각조에서 우승, 준우승을 차지한 회원에게는 고급 보온병을 상품으로 시상했다. 이번대회 A조(5급이상)에는 15명, B조(6급이하)에는 12명 등 모두 27명이 참가했다. 사우회는 참가자 전원과 관전자 15명등 42명에게 비누-치약-삼푸로 구성된 종합선물세트 한상자씩을 선물로 드렸다.

골프대회

5월 11일 충주 중원 골프클럽서 스윙

우승 김은식(업무), 행운상 김동한(보도)

5월 11일에 충주 중원 골프클럽에서 실시된 봄철 골프대회에서는 김은식(업무)회원이 우승을, 차종식(기술)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근접상은 60cm까지 붙인 문정철(기술), 심우슬(편제) 회원이 차지했고 행운상은 김동한(보도), 감투상은 권선장(관리) 회원에게 돌아갔다.

낚시대회

5월 2일 김포 봉성리 수로서 월척

1등상-송재선(업무), 27.5cm 붕어 낚아

5월2일에 김포 봉성리 수로서에서 실시된 봄철 낚시대회에서는 송재선(업무)회원이 27.5cm짜리 붕어를 잡아 1등상을 받았다. 2등은 송인익(관리)회원으로 26.3cm, 3등은 이중복(관리) 회원으로 25cm짜리 붕어를 잡았다. 그동안 총무일을 보느라 대회때마다 낚시는 포기하고 다른 회원들의 뒷바라지만 해오던 경진근(관리) 회원은 총무에서 물러나자마자 38.5cm짜리 잉어를 잡아올려 행운상을 차지하면서 그 동안의 한(?)을 풀었다.



등산대회

4월 18일 정릉쪽 삼각산 코스 탐방

꽃피는 봄날 72명 회원 참가, 건강 다지며 산행

- 4월 18일 (수)에 실시된 봄철 등산대회에는 72명의 회원들이 참가해서 건강도 다지고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날의 하루를 즐겼다. 이날 등산대회는 정릉 국민대학교 앞을 출발해서 여래사와 북악하늘길을 거쳐 다시 정릉 탐방안내소로 내려오는 코스에서 진행됐다. 사우회에서는 참가한 모든 회원에게 1리터짜리 고급 등산물병을 선물했다. 이날 등산대회는 또 박한성회장·이대교총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사우회 행사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문공부방

매주 목요일 사우회 사무실서 논어 공부



유희근의 논어이야기 1

논어 憲問篇에 나온다. 見利思義란 “이익을 보거든 이것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하라” 즉 “정당하게 얻은 부귀가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시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까? 반대말로는 見利忘義 -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도 정의도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요즘 세태 아닌가.

見危授命은 “위태로움을 보면, 즉 위기를 당하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다. “見利思義 見危授命”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사살하고 여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직접 썼던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문화보험사장 공로상 수상



백하현 사장

(유)문화보험판매(사장-백하현, 사우회상임부회장)가 5월 16일 홍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문화보험판매는 FY2011 홍국스타 어워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을 평가받아 법인영업부문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문화보험판매는 MBC 본사와 자회사,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반보험 및 자동차, 방송장비, 해외출장등에 걸쳐 보험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최우철 스토리 계속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음치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음의 다른 높이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한 자신감을 찾는 것을 보면서 직업을 참 잘 택했다고 자부한다.

이런 강의를 하면서부터 나는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나는 자신감 넘치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것 같다.

카카오 톡의 내 프로필은 이렇게 적혀있다. 나는 내가 좋다.

참고 : 홈페이지 dodreamspeech.com
스피치아카데미.com

이 사람!

떠나라 낯선 곳으로, 찾으러 떠나라

황영욱 (보도)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직장
에서 퇴직을 했다. MBC도 빗겨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1999년 가을 어느
날, 광화문을 지나다『떠나라! 낯선 곳
으로 그대 하루하루의 낯은 반복으로
부터』교보문고 빌딩에 걸린 ‘광화문
글판’에 감전된 듯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래 떠나자!! 교보문고에 내려가 ‘일상
탈출’ (고동화 저)이란 책을 한 권 샀
다.

그때 그랬다.『일상에 지친 당신의

본디 맑은 영혼이 빈 바닷가에서, 적
막한 산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지 모른다.』법현스님(어머니를 따라
출가한 母女스님)의 자전에세이 “떠
나라, 그대 낯선 곳으로”와 같이 평생
직장에서 거리로 밀려나온 많은 사람
들에게 이곳저곳에서 위로하듯 우선
은 빈 바닷가와 적막한 山寺 같은 곳
을 찾아가라 토닥거리주고 있었다.
배낭을 꾸렸다.

박물관 · 한옥 · 미술강좌 등
강좌란 강좌 모두 섭렵, 빈곳 채워
IMF퇴직 후 ‘떠나라!...’는
교보빌딩 글판에 감전돼 전국여행
전쟁기념관 도슨트와 함께
1월부터 민속박물관 해설사로 봉사

‘일상탈출’에 적힌 글을 따라 그해
가을 순천 낙안읍성남도음식축제-별
교-선암사-송광사를 첫 여행지로 나
의 일상탈출은 이렇게 시작했다. 아
는 것만큼 보인다는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이 당시 베스트셀
러였다. 그냥 찾아가는 여행은 좀 밋

밋했다. 답사를 제대로 하기위해 찾
아간 것이 박물관에 개설된 박물관대
학강좌 1년 과정을 시작으로 국립민속
박물관대학강좌, 한옥문화원 한옥강
좌, 서울시 고전음악강좌, 서울시립
미술관 미술강좌, 국립현대미술관 토
요미술강좌, 리움 삼성미술관강좌,
포스코미술관 월요미술강좌, 국립고
궁박물관강좌, 서울역사박물관대학강
좌 등 문화와 관련된 강좌를 꾸준히
수강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금요시민강좌를 동호인들과
함께 수강하며 답사를 다닌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봉사인 동시
에 봉사자 스스로도 만족감, 성취감,
새로운 경험과 지식습득 같은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된다.

인문학강좌를 수강하면서 국립국악
원 모니터,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
복 서포터즈,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
술탐방 명예스텝, 사랑티켓 모니터,
국립예술자료원 고전음악강좌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전쟁기
념관, 올해 1월부터는 국립민속博物
관에서 주1회 도슨트(Docent)로 자원
봉사를 시작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6.25
전쟁에 관해,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
리인 민속에 관해 박물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설명해 주는 일이 도슨트
의 몫이다.

자원봉사를 하려면 사학과를 전공
했거나, 박물관 관련 강좌를 수강하
면 선발될 확률이 높아진다.

서류심사(1차), 면접(2차)에 이어
전문교육을 받는다. 학예사 앞에서
시연의 평가가 있지만 인적자원이 우
수한 문화방송의 사우들은 별 어려움
이 없을 것이다. 현재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전쟁기
념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문화유
산해설사, 리움 삼성미술관, 궁궐지
킴이 등을 비롯해 많은 곳이 있으며
서울대공원에서도 올해부터 동물해설
사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자기가 하고자하는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자세한 것
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언어별로 모집한다. MBC의
많은 社友들이 함께 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참고로 전쟁기
념관에서는 조성식 사우와 함께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

안보탐방 답사기

내게 현충일은 너무 특별한 날, 종북논란속 안보현장 가다

신형창 (보도)

현충일 사이렌 소리에 맞춰 나는 긴
묵념을 했다. 중학교 3학년때 맞게된
6.25를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한, 내
가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 가
운에는 고향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징
병검사 실시광경, 그리고 학도병으로
출전한 형 모습도, 또 국군으로 징집
됐거나 의용군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동네 선배 모습도, 그들의 영령
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내 현충
일 묵념의 대상이다. 우리 일행이 탄
MBC대형 버스는 1시간 쯤 지나, 실
향민의 망향의 한을 달래려고 마련된
임진각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20여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선영들
에게 제례를 올리는 망배단을 비롯한
망향의 노래비, 평화의 종각 등을 뜻
깊게 돌아 보았다. 우리들 보다 먼저
온 10여대의 버스에서 내린 외국 관
광객들이 신기하다는듯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있어 남의 나라 분단된 슬픈
사연이 관광거리가 되는것 같아 너무
나 부끄럽고 서글프기까지 했다.

우리는 11시 30분 철원의 명품식당
궁예도성(弓裔都城)에 도착함으로써
3시간여의 아침여행을 마쳤다. 식당
궁예도성은 이곳 관광명소인 고석정
(孤石亭)옆에 자리 잡아 유명하다. 고
석정은 의적 임궽정이 기거하고 활동
하던 곳이었다는 전설과 함께 MBC
드라마 ‘선덕여왕’과 ‘닥터 진’의 촬
영 장소로도 알려져 더욱 유명해진 곳
이기도 하단다. 울창한 숲과 깎아지른
절벽들이 임궽정이 활동했다는 역사
적 전설을 느끼기에 충분했으나 이곳
도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 원래의 풍
광을 감상하기가 어려웠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만우 사우회 고
문이 베푼 갈비와 칠명면으로 포식을
하면서 6.25전투에 참여한 원로들의
민족의 비극인 전쟁 참화에 대한 실화
를 경청하면서 산 안보교육을 제대로
받기도 했다. 통역장교를 종군했던 서
규석 고문의 철의삼각지 전투상황과
해병대 장교로 참전했던 공대식 원로
의 원산 상륙작전 실황도 종북주의자
들의 국회입성과, 애국가는 국가(國
歌)가 아니라는 이념논쟁의 혼란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다.

철원의 제2땅굴은 1975년 3월 24
일에 발견된 것으로 길이는 3.5km 높
이2m 폭2.2m로 화강암을 뚫고 군사
분계선 1.1km까지 파내려 왔다. 한시
간에 만6천여명의 무장병력을 침투시
킬수 있는 깊고 넓고 높은 이 화강암
땅굴을 견학하기 위해 우리는 줄을 서
서 안전모를 받아쓰고 해설사의 뒤를
따라 지하로 들어가 불빛을 따라 들어
가면서 많은것을 느꼈다.

첫째는, 만일 이러한 땅굴들이 제때
발견되지 않고 그들의 의도대로 수많
은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되었을까 하는 아찔함
과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하기 그지없
는 장비와 오직 폭약으로 바위를 뚫으
면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장병들이 억
울하게 죽어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이 이를 발견
하자 차단벽을 쌓아 이를 제거 하려다
가 8명의 국군이 희생되었다니 이 또
한 서글픈 일이어서 그들의 위령탑에
묵념을 올렸다. 왕복 40여분 걸리는
땅굴 끝까지, 낮은 곳에서는 안전모가
천정에 부딪치기도 하고 떨어지는 물

방울에 옷이 젖어가면서, 몇몇 원로들
을 제외하고 30여명은 무사히 견학을
마침으로써 이번 안보 견학의 제일 중
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우리들 모두는 땅굴 견학을 하면서



철원 평화전망대 앞에서의 필자

철의 삼각지 전투와 원산상륙작전 등
참가원로들의 증언은 산 안보교육
임궽정 활동무대 고석정, MBC드라마
선덕여왕등 촬영지로 유명세 타

철원 제2땅굴

- 75년 발견
- 길이 3.5km 군사분계선 1.1km까지 남하
- 1시간에 무장병력 1만6천명 침투가능

전쟁을 겪은 우리세대가 이런 안보 교
육을 받을것이 아니고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을 견학 시켜야
한다고 걱정들을 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채 인솔교사의 안내로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철원군
청 문화해설사는 겨울철을 제외하곤
하루 평균 1천명 정도가 이곳을 견학
한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어 우리는 평화전망대에서 철의
삼각지 전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
관을 둘러보면서 이현보 · 김세중 두
원로는 자기들이 참여했던 전투에 대
해 지도를 가리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월정리역에서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처참하게 부
서진 기차와 한번 불려가면 살아서 돌
아오지 못했다는 북한 노동당 당사의
흉측한 모습도우리들의 눈길을 멈추
게 했다.

이번 원로회원 선발에 70대 후반인
내가 마지막으로 선발되었다는 말을
했듯이 돌아오는 길에 사우회 임원은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의 회원들은
우리도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
데 원로대접을 못 받느냐는 불평 아닌
항의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을철
문화탐방은 이번에 초청된 원로들을
제외하고 그분들 중에서 선발 · 초청
하겠으니 이해해 주십사하는 고뇌에
찬 이야기도 들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견학을
마치면서, 6.25는 국군의 북침이라던
가, 또는 6.25가 무슨 날 인지도 모른
다는 젊은세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김현희가 가짜라고 고집하는 세력들
이 있는 한 안보교육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절실히 느끼면서 보
람을 만끽했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십시오.

평생회비

오양수(관리)4/19 최영근(편제)4/24 박영민(보도)5/04 전평국(보도)6/01
조현모(보도)6/11 홍용선(보도)7/03 조형철(관리)7/04

연회비

4월 고영일(22~24,80세납부끝) 고창근(12) 권상규(12) 권항택(12)
김관중(08~12) 김대수(전주,12) 김순환(12,80세납부끝) 김정명(12)
김정환(11~12) 김조곤(09~12) 김종성(11~12) 김해원(11~12) 김형국(10~12)
박우용(12) 백낙왕(12) 서상웅(12) 석남수(08~10) 신해명(12) 윤상준(12)
이한수(10~12) 장기태(12) 진성창(12) 진수웅(11~12) 최선규(12~16)
최영식(11~12) 한웅희(12) 황수석(12~13)
5월 강의원(12) 국창섭(12~13) 권태환(12) 김명수(13~15) 김영면(12)
김일중(10~12) 김재현(12) 김정수(보도,12) 김종복(11) 김창동(12) 김태인(12)
노범호(13) 노종규(11) 박성배(12) 박창순(11~12) 백재인(11)
서기석(15~18,80세납부끝) 신병호(12) 오승룡(12) 이낙용(09~13,80세납부끝)
이보근(12) 이양희(12) 이오기(12) 이중복(11~12) 이처경(12~13) 임봉주(14)
임영규(12) 정계춘(15~18) 정국록(11~12) 조한건(12) 조한준(12)
천영숙(10~12) 최대홍(12) 홍학표(12)
6월 권오룡(업무,12) 김귀현(12) 김병문(12) 박해선(12) 전정익(12) 전평국(10~11)

신규입회

4/19 吳良洙(관리) 010-9386-1651 02-957-8624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허브리츠A 105-204
5/04 朴暎珉(보도) 010-5382-0081 02-558-2094
강남구 역삼동 794-28 거평빌라트 303호
6/11 曹憲謨(보도) 010-5384-0036 02-2645-4629
양천구 신정7동 목동우성A 201-102
7/03 洪龍善(보도) 010-7110-1627 02-816-6393
동작구 노량진동 본동삼성래미안A 101-1304

전화/주소변경 ▶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사무처 (02-722-7416)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편제 |
강성호 인천시 서구 당하동 드림로323 힐스테이트 410-802
김병훈 구로구 개봉동 175-8 청실A 1106호
박정섭 010-2547-8369
이무영 010-4121-8302
신종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103-503
정계춘 010-5232-7596
정대용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85 탄현마을 1602-2202
최영근 서초구 서초2동 1332-1 우성3차A 22-206
| 보도 |
김부영 010-2051-2532
한병우 강남구 대치2동 미도A 210-601
| ANN |
방남순 서초구 방배3동 476-46 (4층)
양진수 서초구 반포대로1길 16 객산빌라 302호 (서초동)
| 기술 |
이동엽 010-4199-9367 02-557-8206 강남구 도곡로7길 22 102-506

7/04 曹炯喆(관리) 010-8915-2405 02-454-4207
광진구 구의3동 광나루로56길 32, 현대A 208-1901
경조사항
경사
팔순 이태림(업무)8/26 김현철(편제)9/02 노시창(전주)9/13
김순환(ANN)9/18 황의철(관리)9/18 조용수(미주)9/24
고희 이의열(관리)7/01 은정기(관리)7/03 나명수(관리)7/11 김정명(보도)7/15
김우룡(편제)7/18 민정창(보도)7/19 김종세(보도)8/03 석남수(기술)8/06
박광성(업무)8/10 최영복(관리)8/10 정승호(대구)8/25 신현필(보도)8/31
박용곤(관리)9/14 박기윤(대구)9/24 정태웅(기술)9/28
회갑 이강식(관리)7/04 김정제(관리)7/28 신명현(업무)8/03 양희성(업무)8/25
임부영(관리)9/13
결혼
오수천(관리)장남4/22 김상기(보도)장남4/28 류제국(편제)차녀5/03
황재정(ANN)장남5/12 이대우(보도)차녀6/02 김철호(보도)아들6/02
임주완(ANN)장남6/02 이중광(관리)차남6/03 김연두(관리)장남6/09
반주원(ANN)차녀6/09 양영철(보도)장녀6/16 김관중(업무)장남6/17
김부영(보도)장남6/30 한숙동(편제)장녀6/30 신병호(대전)막내7/07
부음
고영일(업무)장모상4/14 김대수(전주)모친상4/17 박 종(편제)모친상4/28
서정호(대구)모친상5/06 차인태(ANN)부친상5/06 이재갑(편제)장인상6/08
이무영(편제)아들사망6/10 정계춘(편제)장인상6/22 나종인(편제)장인상6/23
구분학(보도)모친상6/25 최영언(보도)장모상6/30
-**김기주(보도)** : 前MBC전무. 뇌경색으로 4월 29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16년전, 교회 새벽예배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뒤 건강관리를 잘해오다가 올 1월 16일에 병세가 악화돼 용인 중앙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해 왔으나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타계했다. MBC 개국요원으로 인사동 시절 입사했으며 워싱턴 특파원 경험을 살려 뉴스데스크 포맷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들 우재씨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분자생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문기회 새 회장에 양영철 회원



양영철 회장



정홍보 부회장



윤홍섭 부회장



조기양 총무

문화방송기자회(이하 문기회) 새 회장에 양영철 회원이 선출됐다. 문기회는 5월 17일, 광화문에 있는 오션패밀리씨푸드 뷔페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회장에 양영철 회원을 선출했다. 양회장은 MBC 기공채 9기로 1974년에 입사했으며 경

제부장·논설위원을 거쳐 삼척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한림대학교 객원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부회장은 정홍보(서울대석좌교수·전춘천 MBC사장), 윤홍섭(사우회이사)회원이 선임됐다. 또 총무에는 조기양(극동대학

교초빙교수·전MBC스포츠사장)회원이 선임됐다. 문기회는 문화방송 기자출신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이며 1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매달 3번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MBC에서도 들을 수 없다는 사가(社歌)를 반드시 부른뒤 모임을 끝내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김기도(보도)

김기도(보도)
O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연임
前국회의원. 4월 초 OBS(경인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됐다.



문장환(기술)

문장환(기술)
TBN강원본부장 취임
前삼척MBC사장. 7월 12일 한국교통방송(TBN) 강원본부장으로 취임했다.



박우정(보도)

박우정(보도)
방송기자클럽 고문 추대
前청주MBC사장·방송기자클럽 회장. 4월 6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제12대 회장단 고문으로 추대됐다.

ESSAY

인생에 공식 없다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연설공포증 있거나 쉽게 목숨는 사람, 내게 오라!

최우철(보도)



나는 사실 내가 좋다. 좋으니 찌푸릴 일도 별로 없고 자주 웃게 된다. 덕분에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바쁘다.

인생 2막을 주제로 원고 청탁을 해올 때 다소 망설였다. 누구나 2막을 살고 있는데 왜 하필 나를 택해 원고 청탁인가? 아마도 바쁘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부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쁘게 사는 근황이라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 승낙했다. 2006년 12월 31일이 문화방송이 허락하는 내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누구나 정년이 가까워 오면 이름 해서 2막을 어떻게 열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했다.

인생은 공식이 없다. 2004년 정년이 2년 남은 어느 날 대학 동창이 뜬금없는 제안을 해 왔다. 같이 대학원을 다니자는 것이었다. 같은 나이에 곧 있을 정년에 대비해 학위를 따 놓자는 제의가 싫지는 않았다.

어느 날 대학원 동료 제안을 해 왔다. 자신의 학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특강이 있는데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제목은 의사소통이었다. 전공과도 무관치 않아 수락을 했는데 학원 원장은 계속해서 강의를 해 달라는 것

소통전문가로 대치동학원이 휩쓸며 짝잘한 소득올려
스피치학원 동업-간택이 부어 학원독자경영-지금은
달랑 심부름 사원 한명과 개인 교습에 몰두

롤러코스터 세상 겪으며 자신감 얻었다

대학강의 일정에 쫓기며 살아도 나는 내가 좋다

이였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다. 인생은 공식이 없다. 하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다.

곧 이어서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의 의뢰가 왔다. 일면식도 없는 원장이 나타나서 강의료는 얼마인데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 놀면 뭐해? 이렇게 내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년을 몇 달 앞두고 이제 제법 이력이 붙어도 학원에서 의사소통의 노하우를 강의하던 도중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개별 상담을 하는데 뜻밖의 제안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강남에서 같이 스피치 학원을 하자라는 것이었다. 이름 해 동업이라는 것이다.

투자도 같은 금액으로 이익도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었다. 강의실이 거의 170평이나 되는 큰 규모의 학원이었다. 동업자는 스피치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학원 전문가였다.

덕분에 나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학생 겸 강사가 되었다.

문제는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강생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었다. 스피치뿐만 아니라 아나운서 지망생도 수강생을 모집해 눈코 뜰 새 없는 학원 강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루 12시간씩 강의를 해야 하는 바쁜 생활이 시작됐다.

하루 12시간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무언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 무렵 모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

안이 왔다. 덩달아 수도권 대학에서도 제안이 연달아 왔다. 학원 수입은 아주 좋았다. 수입만 생각하다가 건강을 해칠 것 같고 대학원이나 학부 강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생각해 낸 것이 동업을 포기하고 학교 강의에 전념하자는 것이었다. 애써 2년 동안 얻은 학원 경영 노하우도 살리고 학교 강의도 하고 일석이조를 노리자. 나만의 독립된 학원도 경영하고 학교 강의도 다니자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인천의 인하대학교, 수원 의정부의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대학원 최고위과정 등에서 최우철 교수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강의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두드림 스피치 아카데미라는 학원에서 대표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신데렐라 공식이다.

언론사와 군, 경찰, 교육자 등은 사기꾼들의 좋은 먹이가 된다고 들었다. 학원을 나 혼자 경영하면서 나를 먹이 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든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알았다.

한동안은 직원을 5명씩 두고 학원을 경영했지만 지금은 심부름하는 사원 한 명두고 혼자 한다. 그게 속이 훨씬 편하다. 지금은 강의를 스피치 위주로 개인 교습을 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불안해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앉아서는 아무런 증세가 없는 사람이 몇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덜덜 떠는 것이 불안증이다.

나는 요즘 이 불안증의 치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성공적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기초반과 고급반 강의를 맡고 있다. 벌써 7기가 넘었다.

또 목소리를 치료해 주고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30분 이상 수다를 떠다든가 강의를 하고나면 반드시 목이 쉰다. 신기하게도 내가 소리 내는 방법을 알려주면 목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2면에 계속

회원동정



임기영(보도)

경기문화재단 사장 취임

前MBC사장. 4월16일 경기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4년까지 2년이다.



이연현(편제)

명예총경으로 위촉

前청주MBC사장. 4월17일 경찰청으로부터 텔런트 최불암씨와 함께 35년만에 명예경정에서 명예총경으로 승진·위촉됐다. 이 부회장은 1970년대 후반 수사반장을 연출하면서 경찰청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경정으로 위촉됐다.



박기병(관리)

6.25참전 언론인회 회장 취임

前춘천MBC사장·강원민방사장. 4월19일 (사)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회'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회장은 한국전쟁중이던 1950년 8월에 학도병으로 입대해 7사단 포병 16대대 소속으로 북한군과 싸운바 있다. 박회장은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기자협회 고문과 대한언론인회 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최양묵(편제)

「MBC 50년 인사이드스토리」 출간

(사)방송인회이사·前MBC프로덕션사장. 6월15일, 「MBC 50년 인사이드스토리」(부제-RADIO & The TELEVISION CITY)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MBC 50년의 전제적인 그림'을 부감(俯瞰)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썼다. 이 책에는 제1장 MBC 출발의 막전막후부터 제9장 방송사 경영에 이르기까지 MBC를 관통하는 81편의 글이 정리돼 있다.



이중광(관리)

첫 시집 「라일락 꽃피는 마을」 출간

시인·한국생활문학운영이사·前MBC문화사업부장.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틈틈이 써두었던 5백여편의 시 가운데서 80여편을 골라 첫 시집 「라일락 꽃피는 마을」을 3월 30일 출간했다.



이정준(보도)

파주 귀농 블루베리 농장 운영

퇴사후 파주 적성으로 귀농해 지난 해부터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있다.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은 시력보호 및 회복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관심있는 회원들의 연락을 바라고 있다. (010-6404-3987)



김재형(관리)

몽골 방송사 UBS와 업무 협약 체결

춘천MBC사장. 5월초 몽골 방송사 UBS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방송사는 앞으로 프로그램과 뉴스의 교환 및 공동제작, 사원교류, 취재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완수(대구)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책 펴내



한국주례협회 회장, 前대구 MBC아나운서실장. 5월22일 「행복한부부 행복한가정」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대구지역에서 주례를 서운 열네분의 주례사와 저자의 수필 등 이 실려있다.



김용빈(기술)

런던 이돌집으로 석달간 출타

사우회부회장. 6월12일에 출국해 90일 예정으로 런던 일대를 여행중이다. 김부회장은 사업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 집에 머물면서 런던 올림픽 기간동안 MBC 중계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